

지역 매아리

부안군보건소, A형간염 예방 당부

최근 A형간염 환자가 늘고 있다.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으로 분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어 오염된 손, 음식, 물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15~45일(평균 28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한 번 A형간염에 걸린 사람은 항체가 형성되어 다시 걸리지 않는다. 최근 20~30대에 A형간염이 많이 발생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생활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10세 이전 소아기에 A형간염 바이러스 노출 기회 감소로 인해 A형간염 항체보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황달, 발열, 구토, 식욕감퇴, 쇠약감, 복통, 화색변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6세 미만 소아는 70%가 증상이 없고 약 10% 가량만 황달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70% 이상이 황달이 발생하고 증상이 심해진다.

생전기간은 증상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생긴 후 1주일까지로 황달 발생 후 1주일간 격리하며 일상접촉자와 성접촉자의 경우 A형간염 접촉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해야 한다. 접촉대상은 12~23개월의 소아,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 성인으로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박현자 부안군보건소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와 음식 익혀먹기 등 안전한 음식섭취를 생활화 하며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쌔고을 정읍, 쌔나는 기차여행'

정읍시, 농진청·코레일 공모사업 '농뚜레일' 선정

정읍시가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정읍시가 한국철도공사와 농촌진흥청이 전국 지자체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농촌체험기차 여행상품인 '농(農)뚜레일'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공모에서는 정읍시와 강릉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의 상품명은 '쌔고을 정읍, 기차로 쌔나게 즐기세요!(이하 쌔고을 정읍여행)'다. 쌔고을 정읍여행은 정읍에서 생산된 지황을 활용한 생화차와 단풍미인 한우의 맛, 문화관광자원인 무성서원, 생화차 거리 등 맛을 즐길 수 있는 투어 상품이다.

상품은 오늘부터 전국 주요역과 옛 초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에서 판매된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 기차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매주 토요일 KTX 지정 좌석제도 운영해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체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해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관계자와 코레일, 농촌진흥청은 10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농촌체험 기차여행상품'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 체험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기차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케팅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고품격 체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행 수요에 맞는 다양한 여행 기회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협약에 참석한 김인태 부시장은 "KTX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도권 등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읍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체험 농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 관광 콘텐츠를 개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휴식과 힐링 공간 조성에도 힘을 쏟을 등 지역자원을 토대로 정읍농촌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상급과정 공개모집

부안군은 오는 2023년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적 개최 준비와 지도자 역량강화를 통해 부안지역 스카우트 활성화 및 부안지구연합회를 이끌어갈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상급과정 지원자 25명을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상급과정은 오는 6월 4~9일까지 5박6일 동안 줄포만 갯벌생태

원에서 실시된다.

참가신청은 부안 군민으로 중급훈련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관내 학교대 또는 지대 스카우트 대장 및 부대장, 부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등 부모, 부안관내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주소지 부안), 부안지역 스카우트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부안군민으로 스카우트 활동 경험자 등을 우선 선발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부안군 새민금잰버리과 잰버리운영팀(☎ 063-580-4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스카우트 전문지도자를 육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부안지구연합회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 재요구 촉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최근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위원회 구성 시 이해당사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재검토위원회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원전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검토 위원회 구성 시 원전 소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고창군을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들도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적기방제 통한 고품질 과일생산 '온힘'

병해충 발생 정보 농업인에 제공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과수 병해충 관찰포 운영과 해충별 발육영점온도(곤충의 발육에 필요한 적정 한계온도)를 이용해 방제 적기를 예상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적기방제해 병해충 밀도를 낮출 것을 당부했다. 과수 병해충 관찰포장은 사과와 배, 복숭아 3개 작목에 대한 11개소의 과수원을 선정해서 이뤄진다.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방문해 병해충을 관찰·조사한다.

예찰 결과는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기술 자료로 활용된다. 예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고 시기별 발생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관측된 온도에 의하면 복숭아순나방은 전년 대비 8~9일 늦은 오는 13~16일이 방제 적기라며 방제에 힘써 줄 것"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 과수 병해충 관찰포 운영과 해충별 발육영점온도를 이용해 방제 적기를 예상하고 있다.

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농약사용 절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5천만원의 들여 사과와 배, 복숭아 등 6개 단체에 교미교란제 등의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캠퍼스 영웅들의 추억의 명곡 소환

부안예술회관서 17일 '콘서트 대학가요제 리턴즈'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개회 기념 기획공연 '콘서트 대학가요제 리턴즈-부안'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등에서 배출된 추억의 명곡들을 소환하는 캠퍼스 영웅들의 귀환콘서트로 건아들, 로커스트, 장남들, 활주로, 샌드페블즈, 전남대트리오 등 1977년부터 2013년까지 36여년 동안 청춘문화와 대중음악의 발전을 이끌었던 스타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오프닝곡 '호텔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건아들의 이영복이 '젊은 미소'·'금연'·'산사나이'를, 로커스트 김태민이 '내가 말했잖아'·'방황'·'Call Me'를, 장남들의 김철이 '바람과 구름'·'지나간 옛 추억'·'런어웨이(Runaway)' 등을 들려준다.

또 전남대트리오 '소리모아'의 최준호·박문욱·박태홍은 '저녁 무렵'·'목련이 진들'·'강물이'를, 활주로의 백인준은 '세상 모르고 싶었노라'·'이 빠진 동그라미'·'처음부터 사랑했네'를, 샌드페블즈의 여병섭은 '나 어떡해'·'저세'·'해야' 등을 선사한다.



마지막에는 전 출연자들이 함께 '아침이슬'을 부를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8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하고 부안예술회관 사무실에서도 관람권 구매가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가 중년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현 세대에게는 중년들의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문화 경험과 세대간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어르신들, 이젠 편히 식사 하세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준공... 도내 공공식당 중 최고시설

지역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식사하는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이 날찍 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지난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광장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장, 복지관 이용어르신 및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식당 증축 준공식이 진행됐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그간 비좁은 탓에 400여명의 어르신들이 4교대로 줄을 서서도 30분이나 기다려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창군에선 12억원 예산을 확보해 400㎡(약120평)규모의 경로식당을 증축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난해 9월에 공사에 들어가 9개월여 만에 준공한 경로식당은 최신식 주방

설비 등을 갖춰 전북도내 공공식당 중 최고를 자랑하는 시설을 갖췄다.

준공식에는 경로식당 증축을 위해 애쓴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 안장환, 현 정소장 박성곤, 대보건축사 전영배 대표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 (유)삼우전기(대표 양승용)가 준공기념 떡을 전달했고, 경로식당 명칭을 짓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또 준공을 기념해 고창군 이용협회 봉사단(대표 정재식)에서 무료이용봉사도 했고, 선운사 경우스님,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이 첫 개소를 기념하는 무료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복지는 필요한 곳에 골고루 그 손길이 미쳐야 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정책과 지원으로 따뜻한 효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